

# 민족과 함께 한 한국교회

## Modern Korean History and Korean Church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목 차

1. 시작하면서 | 127
  2. 한국에서의 개신교회의 시작 | 128
  3. 민족의 위기에서 구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 | 132
  4. 사회개혁과 금주단연 운동 | 135
  5. 교육, 의료 활동을 통한 기여 | 139
  6.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의 기여: 기독교문화, 자선과 구호, 민주-통일운동 | 145
- 맺는 말 | 147



요약

## 민족과 함께 한 한국교회

이 글은 한국기독교회가 현대 한국사회와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논구한 논문이다. 현금 한국기독교 혹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으나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이 나라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 사회변화, 구습의 타파, 신교육과 현대의학의 소개 등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 자선과 구호, 민주-통일운동, 그리고 기독교 문화형성에 기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기독교회의 민족적 기여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기독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답하고자 시도하였다.

*Modern Korean History and  
Korean Church*

주요어

한국, 민족, 한국교회, 한국교회사, 한국근대사

Abstract

Modern Korean History and Korean Church

Sang-Gyoo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historical evidences of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 church or Korean Christianity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o some improper criticism upon the Korean church, the writer illustrated some historical instances, such as nationalistic movement, independent movement, social reform, modern education, modern medical institutions, benevolence or relief activities, democratic movements and formation of Christian culture by the Korean churches which support contributions toward Korean society or modern Korean history.

Keywords | korea, nation, korean church, history of  
korean church, modern korean history

## 1. 시작하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1884년 전래된 이후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고 홍이섭박사는 한국기독교가 19세기 이후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래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민족의 교회로 민족과 함께 걸어갔다. 최근 한국 교회 혹은 한국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근거 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했다. 거의 직업적으로 반기독교운동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일부의 한국사학자들은 한국사회발전에서 외부적 요인은 미미했다고 하는 소위 ‘내재적 발전론’을 내세워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개화기 선각자들이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기독교를 통한 내적 변혁과 발전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숙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직하게 평가해 볼 때 19세기 이후 한국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이 나라의 개화와 독립, 민주제도와 건국, 교육과 의료,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개화사상과 민족자강의식, 민족의 역사와 함께 걸어갔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교회 혹은 한국기독교란 개신교 전체에 대한 집합적 표현이다.

## 2. 한국에서의 개신교회의 시작

한국에서의 기독교와의 접촉은 19세기 초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1880년대 이전까지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도 만주지방을 거점으로 서구교회와의 접촉이 있었으나 1880년대 이후 거주 선교사가 내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전래,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876년의 개항과 1882년의 조미조약 등 구미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orea)의 체결로 1883년 5월에는 미국공사관이 설치되었고, 1884년에는 영국, 독일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일본과 중국서 일하고 있던 미국 장, 감 선교사들은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본국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결과로 미국교회에 의한 한국 선교가 시작된다. 미국장로교회는 이미 183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조선의 개방정책에 자극을 받아 조선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미국교회의 관심은 공사관이 설치된 1883년 5월 이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李樹廷)은 일본 농정의 권위자였던 쓰다센(津田仙, 1837- ), 미국성서공회의 헨리 루미스(Henry

1) 필자는 이런 주제를 다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해방 6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라는 제목의 소품을 <목회와 신학> 194호(2005. 8)에 발표한 바 있다(62-67쪽). 이 글은 필자의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생명의 양식, 2007), 442-454에 재수록 되어 있다. 이 소품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Loomis), 미국장로교회의 조지 녹스(George W. Knox) 등과 접촉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1883년 4월 29일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조지 나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수정의 개종을 계기로 일본 주재 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 기관지에 조선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조선 선교의 긴박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수정 또한 ‘한국의 실정’이라는 글을 <세계선교 평론>(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기고하고 한국선교를 호소하였다. 일본에서 조선인 개종자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교회에서 조선을 선교하지는 주장이 일기도 했고, 조선 선교를 자원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수정은 일본인의 조선 선교를 반대하였고, 도리어 미국선교사가 조선으로 파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sup>2)</sup> 이런 이수정의 인식은 그 이후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미국이 아닌 일본인에 의해 한국 선교가 시도되었다면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 때문에 기독교 전파는 상당한 저항을 받았을 것이고, 서구적 가치는 한국에 소개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장로교가 한국 선교를 고려 할 당시 미국감리교회도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미국 감리교의 가우처(John. F. Goucher, 1845-1922)목사가 시카고를 거쳐 와싱턴으로 향하던 민영익(閔泳翊)을 비롯한 견미사절단과의 만남은 미국감리교회의 한국선교의 길을 개척하게 된다. 가우처는 견미사절단 일행을 통해 조선에서의 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1883년 11월 6일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파울러 감독(Bishop C. H. Fowler)에게 “은둔의 나라 한국에서도 선교사역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2천 달러의 기부금을 보냈다. 후에 3천불을 더 기부하고 한국선교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 가우처는 일본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한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 1824-1907)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했다.

2)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84.

한국 방문 요청을 받는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19일 나가사키를 떠나 24일 재물포에 도착하였고, 이때부터 2주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매클레이는 외위문(外衛門) 주사 김옥균을 통해 국왕에게 한국선교에 대한 청원을 올렸는데, 7월 3일 고종으로부터 병원선교와 교육을 허락한다는 허락을 받았다.<sup>3)</sup> 이런 상황에서 미국감리교도 한국선교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한국선교에 대한 호소는 해외선교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주었고, 곧 한국은 미국교회의 중요한 선교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때 미국에서는 해외선교에 대한 거 교회적 운동이 일어났고, 곧 학생자원운동(SVM)이 일어나 선교운동이 확대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교회나 조선의 고종은 의료와 교육 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미국교회는 이를 ‘간접 선교’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고종은 ‘개화의 도구’로 인식했던 것이다.

미국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테네시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헤론(John W. Heron, 1856-1890)을 한국에 파송할 첫 선교사로 임명했고, 감리교는 의사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1856-1922)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1832-1909)을 조선에 파송할 첫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들의 조선 입국은 지체되었지만 임명받는 첫 선교사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884년 9월 20일 최초의 거주선교사가 입국하였는데, 그가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알렌이었다. 중국 상해에서 일하던 그는 조선으로

3) R. S. Maclay, "Korea's Permit to Christianity," 289; R. S. Maclay, "A Fortnight in Seoul, Korea, in 1884," *Gospel in All Land* 17(Aug. 1896), 354-360, 이 사실을 윤치호도 알고 있었다. 윤치호는 1884년 7월 4일자 일기에서 "전하께서 미국 상선의 항해와 미국인의 병원 및 학교 설립을 허가 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윤치호 일기 1』(국사편찬위원회, 1973), 81.

임지를 정하고 입국하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5월 1일에는 북감리회 스크랜톤이, 6월 21일에는 북장로교의 헤론 의사가 입국했다.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1884), 북감리회(1885)를 시작으로 호주장로교(1889), 침례교(1889), 성공회(1890), 미국 남장로교(1892), 미국남감리교(1896), 캐나다 장로교회(1898) 등이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국교회는 한국선교를 주도하게 되는데, 북장로교회는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sup>4)</sup> 1900년을 전후하여 장로교나 감리교 외에도 다양한 교파가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내한한 선교사들은 순회전도, 학교와 병원의 설립, 구제와 자선사업 등을 병행하며 여러 지역에서 사역한 결과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평양, 원산 의주 등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첫 10년간은 신자의 증가율은 미미했다.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지 5년째인 1890년 당시에는 오직 11명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해의 세례교인의 수는 장로교가 119명, 감리교가 36명, 도합 155명에 지나지 않았다.<sup>5)</sup> 그러다가 점차 수적 성장이 현저해 지기 시작하였다. 1895년 당시 기독교 신자는 2,50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0년에는 12,600명, 1910년에는 73,180명으로 성장하였다.<sup>6)</sup> 또 1920년에는 92,510명 1930년에는 125,479명으로

4) 1884년부터 1945년까지 내한한 선교사 총수는 1,470명에 달하는데, 이 중 미국북장로교 선교사 316명(21.5%), 남장로교 178명(12.0%), 캐나다장로교 80명(5.4%), 호주장로교 78명(5.3%), 미국북감리회 247명(16.8%), 남감리회 180명(12.2%), 구세군 122명(8.3%) 성공회 73명(4.9%), 동양선교회(OMS) 25명(1.7%), 안식교 28명(1.9%), 기타(147명(10%)) 등이었다. Sang Gyo Lee,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Melbourne: PCV, 2009), 301.

5) 이호운, 『한국교회 초기사』(기독교서회, 1970), 160.

6) 김양선의 자료에 따르면 1895년 746명이었으나 1897년에는 8,496명, 1900년에는

성장하였고 해방 당시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7)</sup>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교사였던 로이 쉬리어(Roy Shearer)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번져가는 불길’ 곧 요원지화(燎原之火, wildfire)라고 불렀다.

내한한 선교사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의 합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으나 장로교의 경우 1907년 독노회를 구성하고 1912년 총회를 구성함으로써 치리 기구를 조직하였고, 감리교는 장로교회 보다 늦은 20여년 늦게 교회 조직을 갖추었다. 이렇게 됨으로 한국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 3. 민족의 위기에서 구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

19세기 말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래된 기독교는 그 초기부터 민족의 역사와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는 운명적 동반자였다. 청일전쟁(淸日戰爭), 노일전쟁, 민비시해사건인 을미사변(乙未事變) 등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시 교회는 이 땅에서 지친 이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이런 상황을 <코리안 리포지토리>(Korean Repository)에서는 “이 가련한 조선인들은 고난과 불안의 와중에서 두 손을 뻗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을미사변 당시 전국의 교회 수는 30여개 처에 지나지 못했고, 교인 수는

---

18,081명으로 격증했다고 보고하였다. 또 어떤 자료에 보면 1895년 530명이었으나 1905년 26,057명으로 10년 사이에 500%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교회 성장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

7) 민경배에 의하면 이미 1930년대의 기독교 신자가 38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434.

1천여 명 미만이었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애국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교회는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이해되었다. 당시 기독교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종교였다. 교회공동체는 나라사랑의 여러 노래(愛國歌)를 통해 민족의 아픔에 동참했다. 이 중 한 가지 애국가가 이리했다.

하나님께 성심기도 국태평과 민안락을  
 임군봉축 정부사랑 학도 병정 순검사랑  
 사람마다 애자품어 공평정직 힘을쓰오  
 육신세상 있을때에 국태평이 제일좋다  
 굳게잡고 맹세하여 대군주의 덕을 돕세<sup>8)</sup>

일제의 침략은 우리 민족을 위기로 몰아갔다. 1875년 병수호조약의 체결을 통해 조선 진출의 발판을 얻고, 청일, 노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한반도에서 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배제하고, 을사오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06년에는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와 상관없는 만주사변(1931), 상해사변(1932), 중일전쟁(1937) 그리고 태평양전쟁(1941)에 이르는 ‘15년 전쟁기’를 맞게 된다. 이런 일제의 식민지배와 전쟁정책 하에서 한국 기독교는 일제에 대한 가장 저항적인 집단이었다. 1905년 상동교회(담임목사 전덕기)를 중심으로 상동파들이 을사5조약 무효화운동을 주도하였고, 1907년의 신민회 사건, 서북지방의 교육구국 운동의 중심은 다름 아닌 기독교회였다. 일제하에서 비폭력, 혹은 폭력적인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다. 혹자는 의병활동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혹자는 반일 무력투쟁에 가담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전도활동을 펼치며 신앙구국을 꿈꾸기도 했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기독교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

8) 『독립신문』, 1896. 7. 23, 24일자. 원문을 현대어로 고침.

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삼일운동 당시 그러했다. 삼일운동이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과고다 공원과 태화관,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어 적극적으로는 약 2개월, 광의적으로는 1년여 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의 만주, 연해주 등으로 확대된 민족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9년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민족독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삼일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만명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 2천만명의 1%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교회는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이들은 삼일운동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언문의 배포와 군중동원에 이르기까지 약 25~30%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국사편찬 위원회가 발행한 『일제침략 하 한국 36년사』를 보면 3.1독립운동에 참가한 인구를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가 22%, 천도교가 15%, 기타종교가 2%, 무종교가 61%였다고 한다. 이 당시 기독교인구가 전 국민의 1%에 지나지 않았는데, 삼일운동에 참가한 자 중 22%가 개신교신자였다는 점은 기독교신자들이 삼일운동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에서 기독교계의 역할과 영향이 컸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 또한 심했다. 조선총독부가 191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19년 4월말까지 투옥된 기독교인은 2,120명으로서 유교, 불교, 천도교도의 총수 1,556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를 무의미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33인 중에 천도교도 15명, 불교도는 2명에 불과했으나 기독교신자는 16명에 달했는데, 이 점은 당시 교회가 이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대표 16인은 전체 33인의 절반에 해당하며, 33인을 포함하여 48인 대표로 볼 때 기독교 대표는 24인으로 이 경우도 절반인 50%에 해당한다. 위의 33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당시 총회장이던 김선두

목사가 평양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평양의 장로교신학교는 잠정 휴교했다. 감리교의 경우 26명의 남감리회 소속 목사들이 제명 혹은 휴직당하고, 17명의 연회원들이 투옥됨으로 “지방회를 감옥에서 개최하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삼일운동을 통해 한국 기독교는 외래종교요 서양종교로서 한국인이 받아드릴 수 없다는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민족의 종교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공산당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진독수(陳獨秀)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알게 된 후 종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우리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독교를 경시하던 사상을 고쳐야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반일적(反日的), 민족적(民族的)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나라들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기독교’ 곧 기독교적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형상하게 된 것이다.

#### 4. 사회개혁과 금주단연 운동

한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사회의식을 깨우치고 구습을 타파하고 여권을 신장하는 등 사회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선교사들은 서구적 합리주의와 기독교적 윤리관을 제시하며 기독교인들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우상숭배라는 측면에서 타 종교의 ‘허망성’을 지적하면서 허황된 풍수지리설, 미신의 비과학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조혼의 악습과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의 불합리성

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계몽했다. 바른 효행을 강조하며 형식화된 제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도(모)식을 권장했다. 특히 한국교회회는 금주 단연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기독교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이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나 흡연문제에 대해 관망했으나 곧 술과 담배의 해악을 깨닫기 시작하고, 1890년대 후반부터 금주와 단연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즉 술과 담배는 신앙생활에는 물론이지만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극기나 절제 등 국민정신상 무익하다는 점을 가르쳤다. 기독교신문의 효시로서 아펜젤러가 창간한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에서 금주에 대한 첫 기사가 게재된 것은 1897년 4월 7일자였고, ‘계주론’이 처음 게재된 것은 1897년 6월 23일자이지만 한국 교회는 이전부터 금주, 단연을 강조해 왔다. <조선그리스도인 회보>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금주론을 전개하고, “술을 없이 할 물건,” 혹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금주를 권하고 있다. 1900년 12월에 창간된 <신학월보>에서도 논설이나 사설을 통해 끊임없이 술과 담배의 해악을 소개하고 금주와 단연을 고취했다.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이후였다. 이 운동은 절제운동(節制運動)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국채 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절제운동을 제창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1,300만원의 국채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재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반도의 2천만 동포가 약3월간 금연을 한다면 1,3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사람이 매 월 20전씩 3개월만 저축하면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회가 이 금연운동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점은 금주, 단연운동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나 신앙상의 이유에서 만이 아니고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신적 효과가 있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때 도박, 축첩과 함께 음주와 흡연에 대해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죄 의식을 갖지 않았으나 이제 이를 자제하고 멀리하고자 했다.

1911년에는 주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절제회’(基督教 節制會)를 조직하여 금주, 금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黃州)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戒煙會)가 조직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계연회는 금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동을 겸하였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는 주일학교 ‘장(長) 감(監) 연합공의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감리교인 임배세(林培世)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가 19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

1. 금수강산 내동포여	2. 패가망신될 독주는	
술을 입에 대지마오	빛을 내어 마시면서	
건강지력 손상하니	자녀교육 위하여는	후렴
천치될까 늘 두렵다	일전한푼 안쓰려내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3. 전국술값 다합하여	4. 천부주신 네 재능과	우리 나라 복 받기는
곳곳마다 학교세워	부모님께 받은 귀체	금주함에 있나니라.
자녀수양 늘시키면	술의 독기 받지 말고	
동서문명 잘빛내리	국가위해 일할찌라	

---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였다. 구세군은 한국선교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매년 1회씩 <구세신문>의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폈다. 이러한 금주, 단연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 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와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 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이때 불리던 절제운동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콜이라

후렴

술잔을 깨치라  
 담배대를 꺾어 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2.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

이 운동을 주도한 실제적인 인물은 장로교 목사인 송상석(1897-1978)이었다.<sup>9)</sup> 그는 1932년 5월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조직하고 총무로 활동했고, 1933년에는 <절제시보(節制時報)>를 창간하고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금주·단연운동을 주도하고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를 입법화하고자 힘썼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 동맹회’(未成年者 飲酒, 吸煙禁止法 實施期成 同盟會)를 조직하고 입법추구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이 칙령 제145호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 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

9) 송상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제7장 (138-155)을 참고할 것.

없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5. 교육, 의료 활동을 통한 기여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교육과 의료를 통한 봉사였다. 교육과 의료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선 정부가 요구했던 바이고, 내한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선교정책이자 한국사회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교육과 의료는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한국사회에서의 환영받는 영역이었다.

기독교 전래 이전의 한국에서의 교육은 서당(글방)이나 서원, 향교(鄕校) 등에서 한문이나 유교관계 경전을 가르치는 구식 교육이었고 그 교육 대상도 특수한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교육의 목표는 일부의 관료양성이었으므로 건실한 시민을 양성하는 보편적 교육개념을 갖지 못했다. 특히 유아나 여성교육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성호사설(星湖歲說)의 저자이자 실학을 체계화한 이익 같은 인물은 여성(부인)은 “근(勤)과 검(儉)과 남여유별의 3계(三戒)를 알면 족하니라. 독서와 강의는 장부의 일이니 부인이 이를 힘쓰면 폐해(弊害)무궁하니라”고 하였을 정도였다. 기독교 이전에도 여성 교육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규방(閨房), 혹은 내방(內房)에서 행해지는 비형식적 교육이었고, 교육의 내용이란 유교적 부덕(婦德)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남성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여성교육을 강조하였고, 영유아 교육에도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유아도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 것은 한국교회의 커다란 공헌이었다.

한국에 소개된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교

설립을 시작했다. 1885년 8월 3일 아펜젤러는 서울 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두 명의 학생으로 배재학당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한국에서의 기독교학교의 효시가 되었다. 동료 선교사 스크랜톤이 “내가 선교 사역에 처음 관여하게 되었을 때 학교, 학교,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불평했을 만큼 아펜젤러는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아펜젤러의 이 학교는 1887년 정부의 공식인가를 얻었는데, 고종황제는 “인재를 배양하는 학당”이라는 의미에서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배재학당은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겨레의 지식의 보고가 되었고, 민족정신의 증추가 되었으며 신문화의 선도자가 되었다.”<sup>10)</sup> 이때부터 한국에는 여러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1886년 5월에는 이화학당이 설립되었고, 그 해 봄에는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님의 사랑방에서 고아원 형식의 학교가 설립되는데, 1891년에 예수교학당으로, 1893년에는 민로아학당으로, 다시 1905년에는 경신학교로 개칭되었다. 1888년에는 여선교사 앨리스에 의해 예수교 여학당이 설립되는데, 1895년 가을 연지동으로 학교를 옮겨 정신여학교로 발전하였다.

곧 서울 이외의 지역인 부산, 대구, 평양, 의주, 강계, 목포, 전주, 진주, 마산 등 전국에 여러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무엘 마펫은 1908년 “우리는 교육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보고했을 정도였다.<sup>11)</sup> 1910년에는 중등학교에 준하는 아카데미 이상의 학교만 37개가 있었는데, 선교회 별로 분류하면 북장로교 8개처, 남장로교 9개처, 캐나다 장로교 5개처, 호주 장로교 3개처, 미 감리교 8개처, 남감리교 4개처등 총 37개 교에 달했다.<sup>12)</sup> 1910년 당시까지 서울과 각 지방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는 다음과 같았다.

10) 金良善, 韓國教會史研究, 66.

11) Samuel Hugh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 146.

1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생명의 말씀사, 2004), 554.

한국에 설립된 대표적 기독교 학교 (Mission School, 1886-1910)

	학교	설립	지역	선교부		학교	설립	지역	선교부
1	배재학당	1886	서울	북감	20	삼일학교	1903	수원	북감
2	경신학당	1886	서울	북장	21	호수돈여학교	1904	개성	남감
3	이화학당	1887	서울	북감	22	영명여학교	1905	공주	북감
4	정신여학당	1887	서울	북장	23	신성학교	1906	선천	북장
5	일신여학교	1892	부산	호주	24	계성학교	1906	대구	북장
6	영화여학교	1892	인천	북감	25	한영서원	1906	대구	남감
7	송실학교	1894	평양	북장	26	미리흠여학교	1906	개성	남감
8	광성학교	1894	평양	북장	27	보성여학교	1907	선천	북장
9	명신학교	1898	재령	북장	28	영명학교	1907	공주	북감
10	정의여학교	1899	평양	북감	29	매향여학교	1907	수원	북감
11	신흥학교	1900	전주	남장	30	송일학교	1907	광주	남장
12	영명학교	1901	군산	남장	31	영생학교	1907	함흥	캐나다
13	멜볼딘여학교	1901	군산	남장	32	영실학교	1908	강계	북장
14	정명여학교	1902	목포	남장	33	수피아여학교	1908	광주	남장
15	기전여학교	1902	전주	남장	34	매산학교	1913	순천	남장
16	송의여학교	1903	평양	북장	35	의신여학교	1913	마산	호주
17	신명여학교	1903	대구	북장	36	보신학교		성진	캐나다
18	영생여학교	1903	함흥	캐나다	37	보신여학교		성진	캐나다
19	루씨여학교	1903	원산	남감	38	보광학교		원산	캐나다

출전: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190-198.

그 이후에도 기독교회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인가받지 못한 교회단위의 학교까지 상정한다면 그 수는 엄청났다. 이런 학교들 외에도 기독교회나 선교부가 설립한 대학들, 곧 송실전문학교(송실대학),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후일 이 두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통합된다),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이 이 나라 교육에 끼친 영향은 아무도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근대 학교를 통해 서구문화를 소개하고 근대과학과 합리주의, 건실한 민주시민 의식을 깨우쳐 주었다.

정리하면 한국기독교는, 남성위주의 사회제도와 차별적인 여성관에 대하여 ‘혁명적 변화’를 주었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권신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교육의 대상임을 일깨워주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남성에 대한 종속적 가치로 인식되던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한국기독교가 의료분야에 끼친 영향 또한 과소평가될 수 없다. 내한 한 첫 선교사는 의료선교사인 알렌(1858-1932)이었고, 그는 미국 공사관의 공의의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4일에 발생한 갑신정변 때 자객의 칼에 자상을 입고 혈관이 끊기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수구파의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치료하여 준 일로 왕실의 신임을 얻고, 곧 고종의 시의(侍醫)로 임명된다. 그는 1885년 1월 폴크(George C. Foulk)를 통해 한국정부에 서양식 병원건립을 제의하였고,<sup>13)</sup> 이 제안에 따라 2월 29일 고종의 윤허로 1885년 4월 10일 4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국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을 개원하게 된다.<sup>14)</sup> 이때 장로교본부와 광혜원과의 관계는 장로교본부는 진료의 책임자를 제공하는데 불과했고, 광혜원은 왕립병원으로 출발했다. 광혜원은 4월 26일에는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된다. 당시 이 병원에서는 하루 265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도 있었고, 개원 후 일 년 간 10,46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중 800여명이 부녀자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394건의 소규모 수술과 150건의 마취를 요하는 대수술을 했다고

13) Allen to Ellinwood, Dec., 22, 1885. 이 제안이 ‘朝鮮政府京中設建病院節論’이었다.

14) 제중원을 한국 최초의 근대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없지 않다. 서울대 학교의 황상의 교수는 1872년 이미 일본정부가 부산 초량왜관에 근대서양의술을 교육받은 일본인 의사 다카다(高田英策)이 진료하고 있었다는 점, 제중원 설립 이전인 1877년 2월 11일 현재의 부산 중구 동광동 2가9번지에 관립 제생의원(濟生議員)을 열고 군의관 야노(失野義徹)를 원장으로 임명하여 진료한 일, 1880년 5월 원산에 생생의원, 1883년에 한성(서울)에 경성의원, 1883년 11월에 인천에 인천일본의원이 있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http://www.pressian.com/article>). 그러나 일본인들이 설립한 이런 병원은 조선에 있는 자국 거류민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제중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Harry Rhodes는 1891년 시약소로 출발하여 1903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부산의 정킨기념병원을 한국에서의 최초의 근대병원(the first modern hospital in Korea) 이라고 주장한다(H. Rhodes, 128). 이것은 부산에서의 경우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다.<sup>15)</sup> 이 점만 보더라도 의료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알 수 있다.

제중원은 1894년 9월에는 정부와는 무관한 선교병원으로 재출발하게 된다. 이 제중원에서 일한 선교사로는 알렌 외에도 언더우드(1885.4-5), 스크랜턴(1885.5-6), 헤론(1885. 6-1890.7), 하디(1890. 10-1891. 4), 빈튼(1891.5-1893. 11) 등이 있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인 에비슨(Dr O. R. Avison, 1860-1956)은 1893년 6월 16일 입국한 이래 1935년 12월 75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제중원(후일 세브란스병원)에서 42년간 한국을 위해 봉사했다.<sup>16)</sup> 그 외에도 여의사 화이팅과 간호사 제이콥슨과 쉴즈 등이 에비슨과 함께 일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근대의학, 의학교육의 전파자들이었다.

제중원에서는 시료 외에도 의학교육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제중원 설립의 주요 목적이기도 했다. 또 의학서적을 역간하고 1899년부터는 정규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교육기관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7명의 젊은이들을 의학교육을 받은 1908년 6월 3일 졸업과 동시에 의사가 되었다. 그들이 김필순, 김희파, 박서양, 신창희, 주현칙, 홍석후, 홍중은이다.

물론 서울에는 선교병원으로 제중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크랜턴에 의해 시작된 ‘시병원’(施病院), 여성들만을 위한 ‘보구녀관’(保救女館)도 있었다. 짧은 기간 알렌을 도와 제중원에서 봉사했던 스크랜턴은 미국 공사관 근처의 집을 매입하여 1885년 9월 10일 사저에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시(施)병원의 시작이었다. 또 감리교 선교부는 당시로는 남녀를 한 병원에서 진료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화학당 구내에서 여성과 어린이만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여성들을 위한 병원인 보구녀관(保救女

15) “The Beginning of Medical work in Korea”, *Korea Repository*, Vol. I, Dec. 1892, 356.

16) 에비슨이 부산에 도착한지 5일 후에 태어난 4번째 아이 더글라스(Douglas)는 후일 아버지를 이어 한국에서 1921년에서 1947년까지 의료선교사로 봉사하였다.

館)의 시작이 되었다. 이 병원은 1892년에는 동대문 분원을 설치하고 볼드윈 시약소(Boldwin Dispensary)라고 명명 하였는데, 1930년부터는 동대문부인병원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 부속병원의 전신이었다.

주한 각 선교부에 의해 서울 이외의 지역, 곧 평양, 선천, 원산, 강계, 부산, 대구, 진주, 전주, 광주 등지에도 병원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1913년까지 30여개 처에 선교병원이 설립되고, 여러 진료소가 개설되기도 했다.<sup>17)</sup> 1938년 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선교사 수는 328명에 달했다.

1913년까지 각 선교부의 병원설립 현황

교파	선교부	지역	계
장로교	북장로교	강계, 선천, 평양, 제령,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부산	9
	남장로교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5
	캐나다장로교	(회령), 성진, 함흥, (원산)	2(2)
	호주장로교	진주, (통영)	1(1)
감리교	북감리회	영변, 평양, 해주, 원주, 공주	5
	남감리회	원산, 송도, 춘천	3
	여선교회	평양, 서울	2
성공회	제물포, 인천	2	
안식교	순안	1	

\* 괄호( ) 표는 진료소만 있는 곳임  
출전,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4.

이처럼 선교병원은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는 우리 민족의 동반자였다. 당시 한국의 의료 상황은 비과학적 사마니

17) 장로교 병원으로는, 강계, 선천, 평양, 제령,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부산(이상 북장로교),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남장로교), 회령(진료소), 성진, 함흥(이상 캐나다장로교), 통영(진료소파서), 진주(이상 호주장로교)에 병원이 있었고, 감리교 병원으로는, 영변, 평양, 해주, 원주, 공주(이상 북감리회), 원산, 송도, 춘천(이상 남감리회), 평양, 서울(감리교, 여선교회)에 병원이 있었다. 그 외에도 제물포, 인천(이상 성공회), 순안(안식교)에도 병원이 있었다.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4)에 근거함.

즘과 관련된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 의료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과적 수술은 불가능했으므로 당시의 의료 수준은 극히 미미했다. 당시 조선인들의 평균수명은 남녀 평균 40세 정도에 불과했고, 영아 및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태에서 선교병원은 위대한 인도주의적 봉사였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술의 전파를 통해 한국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에비슨 박사는 초기 의료선교가 남긴 공헌에 대하여 다음의 5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첫째, 호열자나 각종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의료선교사들의 시약, 시료, 종두 등 예방과 치료활동을 통해 병이 미신과 악신(惡神)에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인간을 미신적 공포에서 해방한 점, 둘째, 종두(種痘)의 보급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현상, 셋째,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구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점, 넷째, 예방, 시약, 치료, 공중위생 및 보건증진 등 각종 의료활동을 통해 기독교신앙이 전파되고 수용된 점, 다섯째, 의학교제의 번역 및 의료관계 저술을 통해 한국에서의 과학교육 혹은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 점을 지적하였다.<sup>18)</sup>

## 6.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의 기여: 기독교문화, 자선과 구호, 민주-통일운동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친 영향을 과학적 통계, 혹은 수치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는 사회전반에 서구문화를 소개하고 기독교윤리와 기독교적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기독교는 서양적 배경에서 서양의 문화적

18) D. R. Avison, *History of Medical Work*, 41-43.

이기(利器)를 가지고 소개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개되는 곳에는 기독교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만이 아니라 자선과 구제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적 봉사를 했다. 한국동란 중에는 전화(戰禍)로 인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재건과 자선사업 영역에 당당한 도움을 주었다. 전쟁 중과 전쟁 후에 기독교회를 통해 전달된 구호물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구호기금(Relief fund)보다 더 많고, 대한(對韓) 구호량의 80%는 기독교회를 통한 것이었다고 한다. 전후 기독교회에 의해 수많은 고아원과 아동보호 시설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요한 후원기관이 선명회(World Vision), 기독교아동기금(CCF),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등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회를 통해 활동했다. 한국 교회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교회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하에서 인권의 회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갔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독재정권 혹은 탄압정치에 맞서 싸웠다. 기독교회는 민주화 혹은 인권운동, 그리고 산업화 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회복을 위해 싸웠던 중심지이자 힘의 원천을 제공했다. 한국교회 협의회(NCC)가 편찬한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은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자료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후 민간 중심의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익히 아는 바처럼 통일 논의는 민간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고 관주도로 논의되었고, 통일 논의 자체가 용공 혹은 반국가적인 모반행위로 간주되어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선불리 통일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민간조직으로는 최초로 통일의 당위성과 평화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남북간의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통일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통일문제는 정권적 차원에서 제한된 소수에 의해서 논의되었지만 한국교회는 통일논의의 대중화와 다양한 논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대하여 특히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건실한 종교는 항상 그 시대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개국 이후 개화세력과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가 이 땅에 수용되었고, 한국 근대화에 정신적 계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독립운동에의 참여, 서양의 교육과 의료의 전파, 구습의 타파, 여권 신장, 남녀평등 사상의 고취,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 기독교적 가치관의 확립, 근대 민주정치 제도 도입 등에 영향을 끼쳤다.